



## 제 14회 아산 도시락 시리즈

###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

2011년 12월 9일 (금)/ 11:00 AM-12:00 PM

아산정책연구원

#### 개요

아산정책연구원은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을 초청하여, 제 14회 아산도시락 시리즈(*Asan Dosirak Series*)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Challenges Ahead for the ROK-U.S. Alliance)”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크로닌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차기 한미 양국의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견고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북, 대중관계 그리고 양국의 정권 변화 등의 위험요인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강연 요약본

크로닌 박사는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정책, 그리고 미국이 동북아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해 어떤 외교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지난 3~4년간 수많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고,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유대를 더욱 탄탄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로닌 박사는 한미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가까운 미래에 한미동맹을 위협할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크로닌 박사는 한미양국의 정책결정자들 중 일부가 위기관리의 관점으로 대북문제에 접근하여, 적대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만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이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김정일 정권에 주도권을 갖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책적 접근이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고려해야 할 광범위한 관점과 장기적 목표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크로닌 박사는 미중 관계를 한미동맹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관계가 향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에 주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통일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닌 박사는 다가올 한미 양국의 대선과 정국 변화를 미래 한미동맹에 대한 세 번째 위협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내년 대선 때까지 한미동맹과 관련된 외교적 대응에 신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이 부족한 예산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사력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고, 한편으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미사일 사거리 제한 기준 연장, 핵연료 재처리 해금과 같은 군사 자주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크로닌 박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는 자칫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전략적 변화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향후에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 덧붙이며 강연을 마쳤습니다.